

정다운도서관
도서관탐방

다양한 색깔 만들기 노력하는 도서관

도서관 가는 길

봄 햇살이 너무 강해 여름날씨 같던 날에 우리는 청담 2동 문화복지회관 3층에 위치한 정다운도서관을 찾아왔다. 도서관 주변은 주택가여서 조용하고 깨끗했다. 도서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생활의 쉼터'로 이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모습〉

도서관 주변을 잠시 둘러본 후 도서관에 들어서니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들어오고 있었고, 책을 대출하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로 붐볐다. 도서관에 들어서서부터 벽 등에 다양하게 부착

된 게시물들을 눈여겨 보았는데 맨 먼저 '정다운도서관 이용서비스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외에도 게시판에서는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차고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나니, 아이들로 북적거리던 도서관이 잠시 고요해졌다. 그 사이 우리는 현인옥 사서를 만날 수 있었다. 현 사서는 이용자들의 북적거림 속에 잠시 숨을 돌린 뒤였지만 여전히 조금은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현 사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현 사서와 모자열람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



〈도서관 지킴이 현인옥 사서〉

정다운도서관의 현재

정다운도서관은 2004년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11월 1일 문화복지회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정다운도서관은 동네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쉼터를 구성한다는 모토아래 가족도서관이자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시작해 현재 구립도서관으로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는 약 15,000여권으로 성인도서가 약 8,500권 가량, 아동도서가 6,500권 가량이다. 도서관은 어린이실(모자열람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어린이실에서 한 어린이가 독서하고 있는 모습〉

인터넷검색대, 정보화교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종 문화활동은 문화복지회관의 강좌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이용자는 매일 평균 약 185명 정도이며, 그 중 어린이 이용자가 60명, 성인 이용자가 75명, 대출이용자가 40명 정도 된다.

정다운도서관을 포함한 강남구 도서관들은 구청 서버를 이용해서, 하나의 대출증으로 강남구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책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대출기간은 가족 당 7일간 2책이다.



〈강남구 통합 홈페이지 <http://library.gangnam.go.kr/>〉

도서관의 친구들 - 자원활동가 모임

정다운도서관의 자원활동가 모임(명월)은 도서관 서비스를 돕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족했다. 2, 4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정기모임을 갖고, 홀수 주에는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현재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모임에서는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자원 활동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고, 좋은 책을 선정하며, 독서토론 등의 도서관업무 체험과 전문심리상담, 자료배열, 각종 행사 협조, 이용자 교육 및 서비스, 독서치유·외부행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도서관 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어린이 책도우미'로 선정해 다른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로 색깔 있는 도서관 만들기

청담동은 지역 특성상 외국에서의 거주경험이 많고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이에 특색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절별 주제를 정하고 있다. 1월에는 명절·전통·역사를 주제로, 2월에는 사랑, 3월에는 친구·우정·경제, 4월에는 나무·자연·과학, 5월에는 가정·사랑·화목·평화·감사, 6월에는 희망·전쟁, 7월에는 생명·준법·방학·지구촌·방문·여행, 8월에는 여행·자연·휴식, 9월에는 사색·시·역사·신화, 10월에는 다독·도서관·독서진흥, 11월에는 동물·월동준비, 12월에는 성탄·사랑·선행·나눔 등을 주제로 정해 자료를 별도로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3월부터 5월까지 유치원·학교 등의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도서관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한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시간〉

■ 그림책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그림책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은 매주 수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준다. 읽어준 후에는 동화와 관련된 그림 색칠하기, 색종이 접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펼친다.



〈논술사랑방 풍경〉

■ 논술사랑방

논술사랑방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1-3)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책임기를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논술 사랑방은 현 사서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수업시간에 잠시 참관을 할 수 있었다. 교재도 매번 현 사서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비해 진행한다. 다소 소란스럽고 산만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 사서는 아이들이 금세 집중할 수 있도록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 심리상담 및 마음을 치유하는 책임기

한 달에 두 번 학교 휴업일에는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심리상담 및 마음을 치유하는 책임기 등도 진행한다.

■ 여름·겨울 독서캠프

1월과 8월 방학기간에는 여름·겨울 독서캠프를 운영해 국내 장·단편, 세계명작 국내 장·단편을 중심으로 책임기와 독서왕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작년 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책놀이 한마당을 펼치기도 했는데 책을 읽고 느낌 적기, 주인공 얼굴 그리기, 정다운도서관 6행시 짓기, 나라사랑 고구려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



〈1주년 기념행사 전시 모습〉

민들과 함께 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자원활동으로 영어스토리 타임을 마련해 인기리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그림책 슬라이드 동화 상영, 독서경연대회, 독서퍼즐, 책갈피 만들기 활동 및 작품전시 등도 진행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하기를

정다운도서관은 이름처럼 정감있고 쾌적한 느낌을 주었다. 현 사서는 로하스시대를 맞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에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위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다운도서관은 입지가 좋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상의 조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 확장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존 라이언은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을 꼽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색깔로 내용을 꽉 채운 알찬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글: 심효정, 사진: 최인경)

6월에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찾아갑니다.